

교환학생 수학보고서

1. 기본정보

학과	██████████	이름	김태화
파견국가	미국	파견도시	Texas
파견대학	Texas A&M University	파견기간	2학기

2.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i>Texas A&M University</i>는 Texas 내의 College Station이라는 작은 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인근에 주요 도시로는 차로 1시간 정도 달려 Houston에 도착하고, 2시간 남짓해서 San Antonio에 도착, 그리고 4시간 정도 달려서 Dallas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주위에 먹거리와 Pub이 은근히 있습니다.</p>
2012-2학기 수업	<p>수강 과목</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Soccer Beginning: 아침마다 친구들과 축구를 하면서 즐겁게 보냈던 시간입니다. 나름 축구에 소질이 있던 터라 그 쪽에선 ACE로 통했습니다. 운동 좋아하시는 분께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남녀가 같이 축구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들과 달리 굉장히 거칠어요.2. Nutrition: 기본 영양학 수업입니다. 나름 괜찮은 수업이고요. 과제와 출석만 꾸준히 하신다면 좋은 성적 받는데에는 무리 없습니다.3. Intro to Linguistics: 2학기 수업에서 가장 열심히 들었던 수업입니다. 영어의 어원과 발음 기호에 따른 분류 등을 배웁니다. 영문학 학생들에게 추천드립니다.4. Forensic Psychology: 관심이 있어서 들었던 수업입니다. 하지만 관심이 지고 안되는게 있습니다. 수업 내용도 법정 판례 관련 내용이라 단어도 생소하고 사례별로 예외가 많아 무지 애먹었습니다.5. Rhetoric Composition: 영문학 수업 들을 학생에게는 반드시 수강하여야 할 과목입니다. 다양한 작품을 읽고 느낀 점이나, Essay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013-1학기 수업	<p>수강 과목</p> <p>1. Intro to Literature: 다양한 문학 작품과 영상을 가지고 토론하는 방식입니다. 때로는 시(Poem)도 발표합니다. 토론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에게는 비추천.</p> <p>2. Intro to Business: 수업진도는 매우 빠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과목입니다. 특강도 자주 자주 열리고 있으며, 수강인원이 많아서 조기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 8시 수업이라 늦잠을 주무시고 싶으신 분에게는 비추천.</p> <p>3. Microeconomics: 친구따라 얼떨결에 듣게 된 과목으로 수업의 내용은 무지 어렵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이 잘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학습에 뒤처지진 않을 겁니다.</p> <p>4. Public Speaking: 가장 재미있는 수업이면서 가장 힘든 수업입니다. 매주 화,목 수업으로 앞에 나가서 발표도 하고 (정해진 주제로), 때로는 즉석에서 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매주 시험이 있구요. 하지만 아이들과 토론할 때는 엄청 편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국인 친구들 많이 사귀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p> <p>5. Essential Biology: 수업 내용 자체는 고등학교 이과 정도의 수준이지만 영어로 되있어서 그런지 조금 어렵게 느껴졌던 수업입니다. 수업 시간에 필기한 내용이 시험에서 주를 이루지 않아서, 책을 전체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수강인원도 많아서 복적복적 합니다.</p>
프로그램 운영	<p>외국인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동아리도 많이 개설되어있고, 교환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내에서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1학기 때에는 아시아 교환학생들을 대상으로 각국의 음식을 먹어보고 각국의 전통 춤을 볼 수 있는 자리를 학교에서 마련해주었습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공항에서 내린 첫날, 숨이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날씨가 무지 덥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그 곳 아이들을 날씨가 습하다고 하지만 워낙 미국 대륙이 바다 지면에서 높이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에게는 조금 건조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날씨의 변동이 워낙 심해서 우산은 필수이며, 더운 지방이라고 두꺼운 잠바를 안가지고 가시면 낭패롭니다. 텍사스도 추울 땐 엄청나게 춥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추위를 워낙 잘 타는 편이고 텍사스 기후에 적응이 돼서 그런지 추위 죽을 뻔 했습니다.
안전	제가 출국하기 바로 전날, 텍사스 A&M 대학교 부근에서 총기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말로는 워낙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끔 학교 내에 Bomb Threat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무조건 캠퍼스 밖을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Bomb이 터지는 건 보지 못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안전한 편입니다.
숙소	학교기숙사(<input checked="" type="checkbox"/>) 홈스테이 (<input type="checkbox"/>) 외부 숙소(<input type="checkbox"/>) 기타(<input type="checkbox"/>) 기숙사: Fowler Hall FHK Complex 라고 해서 Fowler, Hughes, Keathly Hall 3개가 붙어있는 기숙사 형태입니다. 기숙사 내에 분위기는 매우 괜찮으며 3개의 기숙사가 붙어있다보니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2013년도 1학기 동안 친구들과 밖에 잔디에서 Frisbee(원반)를 던지며 놀고, 잔디밭에 누워 Tanning도 하고 즐겁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6개월 기숙사 살고 6개월은 나가서 지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숙사에 없는 장점을 외부숙소가 가지고 있거든요..
식사	학교 Meal Plan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학교식당 개별이용 (<input type="checkbox"/>) 홈스테이 (<input type="checkbox"/>) 외부식당 (<input type="checkbox"/>) 직접 요리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Meal Plan이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차가 없으면 밖에 나가서 장보기도 힘들고 주위에 먹을 곳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Meal Plan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학교 내에 먹을 곳이 정해져 있고, 조금 비싼 편이라는 것을 감안하셨으면 합니다.
교통	학교에서 School Bus를 운행해 주는 데 무지 잘 되어 있습니다. 버스 노선을 잘 파악한다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 원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항공사 마다 다름	
Fees	General Deposit Fee: \$100(reimburse)	
보험료	자매 대학에서 권하는 보험 :가격은 기억이 안나네요..	
숙소	기숙사 마다 다름. 본인은 \$1892/Semester	
식비	Meal plan \$1200/semester	
교통비	따로 지불하지 않음.	
책값	책마다 다름. 하지만 엄청 비싸요.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은 서류입니다. J visa의 경우에는 DS 2019서류가 무지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을 경우에는 인천공항에서 출국조차 할 수 없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에서 지시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챙겨야할 옷이나 비상약 등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미국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약을 받는 것이 무지 비싸기 때문에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미국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면서 한국에서 해보지 못한 것들, 보지 못한 것들, 많은 것을 체험하고 돌아왔습니다. 다른 교환학생들과 달리 나름 Dynamic한 경험을 했고, 친구들과도 처음에는 잘 어울리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친구들이 제 방에 찾아와서 같이 밥먹으러 가자, 술 마시러 가자, 놀러 가자, 여행가자 심지어는 연예상담까지 해 줄 정도로 막역하게 지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하자 친구들은 불법체류라도 해서 같이 지내자며 붙잡은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저를 위해 울었던 고마운 친구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년 교환학생을 다녀오면 영어회화는 마스터 하고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엄청난 오해입니다. 미국에서 4년 넘게 생활한 학생도 아직까지 버벅거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학생도 많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미국 문화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를 듣고 말하는 상황에 자기 자신을 집어 던져서 한 번 부

뒤편 봐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 시도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하게 되면 별 것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물꼬가 트이듯이 조금이나마 유창하게 영어를 말하는 여러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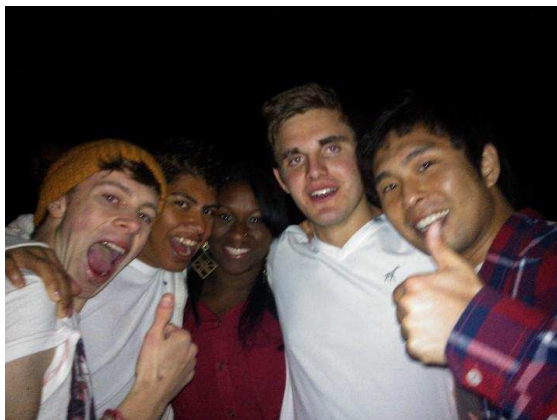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Dallas Fair에 갔을 때 지나가던 외국인이 사진찍자며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사진을 찍으려는 데 이를 눈치 못 챈 행인이 앞을 가려서 안타까워(?)하는 순간입니다.



친구들과 밤새 즐기며 놀다가(?) 배가 고파서 새벽에 ihop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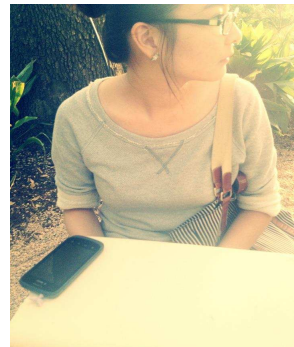
친구들과 기숙사 파티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친구가 제 베프인 영국인 교환학생 Elliot입니다.



기숙사 내에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여성스러운 포즈 취해달라해서 다같이 그렇게 찍었습니다.



이건 겨울방학 기간동안 South Carolina에서 홈스테이 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새해를 기념해서 일본인, 중국인 친구들과 같이 불꽃놀이를 하고 찍었습니다.



2년간 펜팔로만 연락을 하던 친구랑 Dallas에서 만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은 이 친구가 한국에 놀러 와서 가끔 만나 한국의 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